

2023년 제1차 생태환경분과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24.(금) 16:30
- 장 소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컨퍼런스룸

□ 참석자 대상

- 참 석 : 총 14명의 위원 중 9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성지수 팀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석
1	길인경	(사)동마산청년회의소 회장	○
2	김용화	창원특례시시민협의회 마산회원구위원장	
3	김은주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홍보위원장	○
4	박소연	동영미디어 대표	○
5	박은율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무처장	
6	손영섭	(사)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
7	윤석연	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8	이광식	자연보호연맹창원시협의회 회장	○
9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
10	이민영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1	문성용	(주)물환경 대표	
12	최은하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13	한정희	K-ECO 기획부장	○
14	황보경옥	진해구 덕산동 주민자치회 교육환경문화분과장	○

□ 회의결과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연옥 사무국장이 총 14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5항)

2. 참석위원 인사

- 참석위원들이 상호 인사를 나누다.
- 사무국 직원 소개 및 인사를 하다.

3. 제7기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김연옥 사무국장이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장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광식 위원과 황보경옥 위원이 이덕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이덕자 위원이 추천을 수락하여 7기 생태환경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분과 간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윤석연 위원이 자진하여 분과 간사 수행 의사를 표시하다.
-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윤석연 위원이 7기 생태환경분과 간사로 선출되다.
-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인사말씀을 하다.

4. 2023년 생태환경분과 사업계획(안) 논의

- 이덕자 위원장이 지속협에서 고민해 온 것들을 설명해주시고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생태환경분과 사업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하다.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짚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다.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 반딧불이 활동(분과 내 예산으로 활동하기 어렵기에 제외한다고 설명), 투명유리조류충돌 조사, 연안환경 활동가 양성 등을 설명하고 올해는 먼저 (위원)교육부터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위원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은 SDGs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에 우리부터 지속 가능발전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또한 작년에 하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투명유리조류충돌 사업은 와일드 버드 설치가 필요하다면 기관들과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는 다른 곳을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무국에 문의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아직 컨택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분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관련 부서와 연결할 수 있다고 답하다. 또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기관에게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작년에 조사를 한 충돌현황을 사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컨택을 하여 기관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고 하다. 올해는 실천을 하는 해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조금 더 보태서 두 군데 정도를 더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다.
- 한정희 위원이 합포구가 빠져있음을 설명하며, 작년 조사를 바탕으로 되는 곳만 스티커 활동을 해놓으면 홍보가 되니 자기들(기관) 자체 내에서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하천 오염원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묻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해당 조사를 할 거라면 우수기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비가 오면 우수인지 오수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다. 가능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사를 통해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주택가는 워낙 복잡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많아 불명수의 원인을 시에서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점 중 시장에서 생선을 자르고 난 오염된 물들이 다 하천으로 간다고 지적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만일 제안을 하신다면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면서 파악을 해본 후 그걸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형태로 가기 위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손영섭 위원이 위원회 기능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폐수 근거를 체크해서 창원시에 통보하여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 이덕자 위원장이 생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할 게 많으며 일단 우리가 먼저 교육 받고 각각의 기관 단체에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생태환경시설 탐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사업개요 중 위의 세 가지(정책논의들)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하다. 일단 저희가 새로운 기수가 되었고 창원시의 생태환경 시설이 많이 있으니 예를 들어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어떻게 분리배출이 되는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나부터 먼저 알고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견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창원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응원 캠페인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한 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견학과 관련하여 견학 장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분과위원)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말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오늘은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리스트로 정리해보겠다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오늘 같은 날 구체적인 제안은 하기 힘들다고 하다. 오늘은 듣고 내가 생각하는 생태가 무엇인지 대화 방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4월 위원 특강에 대하여 안내하고 2023년 협의회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 넣으면 힘들 것 같으니 일단 가셔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제안도 해주시며, 기본적으로 지속협이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하다. 올해 상반기는 학습의 시간으로 삼아 2년 중 일 년은 배우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차기회의 일정은 분기별 정도로 약 6월 정도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다.
- 한정희 위원이 5월에 만나서 우리가 의논을 해야 진행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5월도 괜찮으며 회의는 아닌 우리(분과위원)가 따로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고 하다.**
- 김연옥 사무국장이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을 리스트로 잡아야하니 결정하는 자리는 필요한 것 같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사업 개요 중 아래의 세 가지에서 하나를 정해서 의견을 내보자고 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해양 활동가 교육지원사업(연안환경활동가)은 수산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싶은 것

은 하천 오염 관리나 투명 유리창인 것 같다고 하다. 투명유리창이 현재로서는 더 편할 것 같다고 하다.

- 한정희 위원이 사무국에서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5월에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이광식 위원이 분과에서 정하면 따라가겠다고 하다.
- 황보경옥 위원이 오늘 하천 오염 얘기를 나누고 나니 우유팩을 세척하는 것에 고민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말하다.
- 이덕자 위원장이 씻었을 때 생기는 물의 소비, 물의 오염과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 했을 때의 이익 등이 얘기가 되면 좋겠으며 이런 것도 숙제인 것 같다고 하다.
- 윤석연 간사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생태환경분야는 생소하지만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하다.
- 손영섭 위원이 추진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를 초월하시는 위원장님이 하셔서 잘 되실 것 같고 (윤석연)간사님도 자원을 하셨으니 잘 될 것 같다고 하다.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거제도의 사례를 들며 우리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다.
- 김대갑(길인경) 위원이 청년회의소의 설립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에 봉사하기 위하여 더 배워서 노력하겠다고 하다.
- 김은주 위원이 생활정치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오늘 회의 내용을 듣다 보니 저희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다.
- 박소연 위원이 생태환경이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이광식 위원이 이번 7기가 6기보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이면서 의욕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6기 때보다 관심도 더 가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다.

5. 기타제안 및 광고

- 운영위원회 4월 12일 개최 예정
- 기후대기과 중소기업 ESG방안 설명회 3월 29일 개최 예정
- 시민생물조사단 모집 안내

6. 폐회

○ 이덕자 분과위원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7. 주요 의결 사항 요약

○ 분과위원장 : 이덕자 행복중심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 분과 간사 : 윤석연 창원중부 녹색어머니회 교육이사

○ 제안된 내용 :

1. 투명유리조류충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와일드 버드 설치 등 실천적 활동 수행
2. 관내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난 뒤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대책
3. 재활용 선별장 등 창원시 환경시설 견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위원 교육
4. 5월 중 분과 소회의 개최 예정

□ 회의사진

